

고귀한 생명 살리는 '정신적 119'

글 양인실 작가 / 사진 전호성



적막한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한강교량 위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SOS 생명의전화.

※ 한국생명의전화 연혁 : 1976년 서울생명의전화 개원. 1978년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로 개편. 1985년 대전생명의전화 개원. 1986년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2년 부천생명의전화 개원. 1998년 한국생명의전화 사이버상담실 개통, 전국대표번호 1588-9191 서비스 시작. 2004년 제1회 생명사랑마라톤대회 개최. 2006년 제1회 생명사랑밤길 걷기 개최. 2011년 한강교량 SOS 생명의전화 개통(마포·한남대교).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은행에 많은 빚을 졌어요. 착실히 갚았지만 3일 전 1,700만원을 당장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돈 빌릴 데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처럼 여겨져 건드릴 수 없어요. 이러느니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끝없는 나락에 빠진 나는 한강 다리에 올랐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두렵기도 했다. 눈을 질끈 감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봤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주변을 서성댔다. 그때 전화 부스가 들어왔다. 무심코 전화기를 들었다.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눈물이 돌았다. ‘이게 살아서 마지막 전화가 되겠구나’ 싶었다.

전화기를 들고 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건너편에서는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캐묻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았다. 어느새 가슴이 따뜻해졌고 머리는 맑아졌다.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줬고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 시간 통화한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로 SOS 생명의전화가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 한국생명의전화에 접수된 사연.

39년 동안 139만 건의 전화

호주 시드니에 살던 알렌 위커 목사가 하루는 한 청년의 전화를 받았다. 실직 상태로 빚을 지고 있었고, 시골 출신의 외톨이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 받을 곳이 없던 청년이었다. 위커 목사는 절망에서 헤어나 새 삶을 찾도록 정성껏 얘기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격을 받은 위커 목사는 위기의 사람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었다. 위커 목사의 미담을 전해들은 신문 기자는 ‘Telephone Lifeline Opened’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1962년 이후 생명의전화는 세계 곳곳에 설치되었다.

1971년 서울 무교동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하던 이영민 목사는 ‘아가페의 집’이라는 커피하우스를 마련해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대화 장소를 제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했



생명의전화 직원과 상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과 오른쪽은 김중훈 이사장과 하상훈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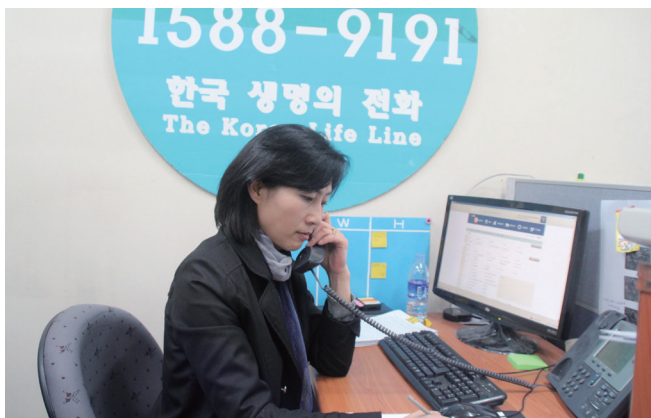
다. 한국생명의전화의 태동이었다.

종로구로 자리를 옮긴 이영민 목사는 곧바로 생명의전화 운동을 전개했고 1976년 9월 1일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표어를 내걸고 개통식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인 ‘생명의전화’가 탄생했다.

자원봉사나 상담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당시에 162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했고, 그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4,600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세계 생명의전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전화가 온 사례였다. 심리상담을 전화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39년 동안 걸려온 139만 건의 상담전화는 비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다.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는 한국생명의전화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제27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55) 원장은 “이 기쁨을 지난 40년 동안 24시간 365일 이음도, 얼굴도 없이 봉사해온 상담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힘든 사람들의 친구처럼 전화상담을 해온 상담원들이야말로 이번 상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 원장은 이어서 “생명의전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119’로서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생명의전화가 40년 가까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상담원들의 자원봉사 덕분이었다(위). 생명의전화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유가족 자조모임' (아래).

장롱 안에서 전화한 여인

“생명의전화는 두 가지 축이 중심을 이룬다고 이영민 목사는 말했습니다. 전화와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그것이지요. 전화는 ‘연결’입니다. 우리는 전화로 고독과 갈등, 자살 고민을 해결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개의 전화선 앞에 앉아 있지만 시민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정신 건강을 보살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상훈 원장도 자원봉사자로 생명의전화와 인연을 맺었다. 1988년 이후 줄곧 생명의전화와 함께한 그에게도 남다른 상담 사연이 많을 터이다.

미국 LA에서 걸려온 전화는 한국에 있는 그의 친구가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알렸었다. 바로 담당 경찰서와 소방서를 연결해 신병을 확보했고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 런던으로 건너간 한국 유학생이 너무 외롭다며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롱 안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자신이 진 빚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려고 해 장롱 안에서 목을 매고 죽으려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살에 실패하고 너무 두려워 밖

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전화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바로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게다가 그 여인은 임신한 상태였으니 전화가 두 명의 생명을 살린 셈이었죠.”

아무리 세상이 비정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사회라 해도 전화는 분명히 이 세계를 이어주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하 원장은 그때 절실히 배웠다. 거기에 생명의전화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건 “거기 누구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의전화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응답의 메시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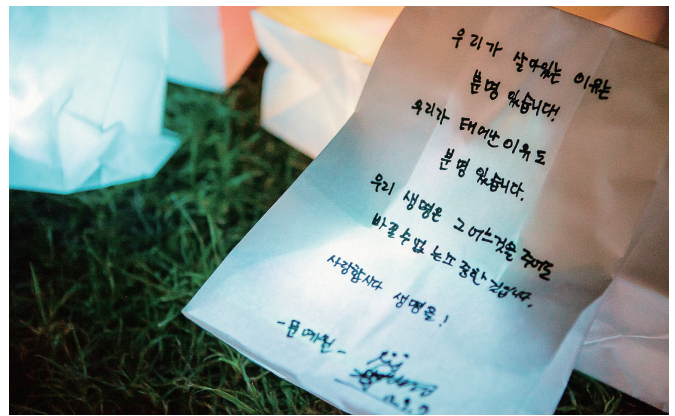
생명의전화 자원봉사 상담원은 1년간 교육받는다. 1학기에는 상담의 기본과정을, 2학기에는 전화상담 과정과 실습을 익힌다. 교육 뒤에도 8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하다가 생명의전화가 태어난 9월 1일 정식 상담봉사원 자격을 얻는다.

1년에 한 번 전국 상담봉사자 모임에 나가 친구를 맺고 정보도 나눈다. 이 모든 일은 봉사자의 자비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생명의전화는 그들을 가리켜 집행자이자 수행자라고 부른다. 상담원의 자발적 참여와 이타성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7천여 명이 교육받았고, 그 중에는 현직 교수도 상당수 포함됐다.

상담 교육과 실제 상담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 잘 이해하고, 가족을 새로이 바라보게 됐으며,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원만해졌다고 그들은 입 모아 말한다. 소그룹끼리 모여 사례를 연구하고 세미나에서 심화 교육을 받는 등 자신을 계발하는 과정에도 열심이다. 이곳 봉사자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 교육받은 1기생 중 아직도 상담하는 봉사자가 있고, 3천여 시간 상담을 해온 이도 있다.

자원봉사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동기화가 이뤄진다.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다,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하겠다는 동기화가 이뤄지면 소명 의식은 더욱 커지고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력이 생긴다. 남을 위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초월한 존재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시간을 내주고 재능을 전하고 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찾는 것이 자원봉사의 진정한 힘이다.

소명 의식은 자원봉사자만의 것이 아니다. 서울 하월곡동에 자리한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앞의 교회에서 모회를 하



‘생명사랑 밤길걷기’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다양한 메시지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가 현재 생명의전화 이사장을 맡은 김종훈(67) 목사, 대학 졸업 후 잠시 들른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비로소 자신의 옷을 입은 느낌이 들었다는 나선영(47) 사무국장, 생명의전화에서 주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생명의전화는 상담원 교육과 사이버상담원 교육, 자살예방 전문교육,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워크숍, 생명 사랑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7년 구제금융 위기 이후 자살이 급증하자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대안으로 범시민적인 ‘밤길걷기 대회’를 주최했다. 저물녘에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걸으며 삶의 소중함과 생명의 역동성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 정신을 나누는 이 행사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한강다리에서 투신자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생명의전화는 교량에 SOS 생명의전화를 설치했다. 현재 마포대교 등 13개 교량에 4대씩 설치되었고, 춘천의 소양1교와 부산 광안대교에도 SOS 생명의전화가 놓여있다. 다시 하상훈 원장의 설명이다.

“자살을 마음먹고 다리에 도착한 순간에도 죽고 싶은 마음과 살려는 생각이 시소계임을 합니다. 단번에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성이다가 SOS 생명의전화를 발견하고 전화기를 듭니다. 그 순간 ‘당신은 살았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전화는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

로도 꼭 막힌 공간에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살만이 길이 아니다, 다른 대안도 있으니 같이 찾자고 말하지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바로 “진짜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입니다. 유독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119에 연결해 신병을 확보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한강다리 투신 자살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의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육군은 생명의전화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생명의전화는 육군과 협약을 맺고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전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육군뿐 아니라 전군으로 확대, 헬프콜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전화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던 생명의전화는 1986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싹어린이집, 여성노숙인쉼터 등을 운영한다. 고무적인 사실은 성북구자살예방센터를 생명의전화가 수탁받았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민간에게 위탁한 첫 사례가 되었다.

생명의전화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는 오직 하나, ‘생명 존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으로 다른 전화상담기관에 노하우를 전수한 생명의전화는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오늘도 생명의전화는 ‘당신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세상에 전한다. 그 울림은 분명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웃음)